

# “사람과 나무는 형제입니다”

신행 현장

그린오너 119 봉사단



그린오너 119 회원 은경양이 한국동 로터리 은행나무에 이름표를 달고있다.

수목원에서 현장실습을 했던 것이 나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어른들이나 오빠, 누나들도 모두 8월에 대학교수님으로부터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았다. 모두들 서울시와 자원봉사연합회에서 마련해 준 나무가꾸기 강의와 실습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에 표찰을 달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는 전문가가 된 것처럼 능숙하다. 나무에 달아준 표찰에는 나무이름과 관리자, 자원봉사연합회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그 밑에 ‘사람과 나무는 형제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내 이름이 관리자로 적힌 표찰을 단 나무는 두 그루다. 만약 아프기라도 하면,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그걸 알게

되면 자원봉사연합회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119 구급대’처럼 출동해서 나무를 돌보아 주고, 종로구청에 알려야 한다. 이래봐도 우리는 모두 서울시의 ‘푸른서울 가꾸기 2000’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한국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을 따라 모두 4개 팀으로 나눠 150여 그루에 표찰을 달았는데, 열띤경쟁에 따라 온 같은 학교 친구 다인(11)이도, 오빠와 오빠 친구도 무척 즐거워했다. 수진 언니(덕성여대 전산 2년)와 수영 오빠(동국대 경영 1년)는 표찰을 매달 철사를 들고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엄마와 엄마친구는 까치발로 힘겹게 표찰을 매달고 있다. 우리와 똑같이

## “한달에 두번이상 공원의 나무 돌본다”

출발했던 건너편 길가의 아저씨 두 명은 벌써 저쪽 나무까지 갔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집에서 기르는 식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외요양과 인파에 시달리는 가로수, 행락인파에 훼손되는 숲에도 관심을 갖고 잘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표찰달기를 끝내고 모두가 한 곳에 모이자 이런 저런 지시를 하던 아줌마(자원봉사연합회 김혜련 사무처장)가 음료수를 돌리며 인사를 했다.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는 모습이 보기 좋다. 얼마 뒤엔 우리 짝(사천향사) 어린이법회 친구들이 삼계동 갈을공원에서 표찰달기를 한다. 법회 친구들에게 내 경험담을 미리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가로수에 표찰을 달고 공원나무도 돌본다 고 한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들이 이제 모두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정말 기분이 좋다. 다들 나랑 똑같은 생각이겠지?

한영우 기자(mwhan@buddhopia.com)

## 안국동 150여 가로수 표찰달기 ‘첫 행사’

안원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른들은 머리가 나빠봐. 하지만 다른 어른들도 있어. 저기 봐, 노란 옷 입은 어른들은 다 나무를 아끼고...”

“은영아! 거기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 다른 나무에도 표찰 달아야 하는데...”

수다가 채 끝나기 전에 엄마가 다른 어른들과 함께 손짓을 한다. 모두가 노란색 옷을 입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그린 오너(Green Owner) 119 봉사단’이다. 엄마와 오빠도 있고, 대학생 누나와 오빠, 엄마 친구들, 처음 보는 아저씨들도 있다. 다들 나무에 자기이름이 적힌 표찰을 다는다고 정신이 없다.

오늘(10월 14일)은 자원봉사연합회 ‘그린오너 119 봉사단’이 발족(지난 8월)하고 처음으로 활약을 나눴다. 봉사단원은 모두 70명 정도라는데 오늘 나온 사람들은 50명쯤 될까. 우리처럼 식구들끼리 온 사람들도 다섯 가족이나 됐다. 지난번(8월16일)에 엄마랑 오빠랑 흥흥

## 생활속의 불교 ‘마음’ 공부를 ‘병’ 돌보듯 한다면...

7월 1일 의학 분업 전문실시 발표 이후, 병·의원의휴·폐업 등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의 성숙이나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나 정책 난맥,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따위를 질타하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안이한 발상이다.

왜냐. 현상계의 모든 것은 ‘마음’의 반영일 뿐인데, 병든 마음을 도의시한 처방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란 애시당초 무리이기 때문이다.

병 있는 사람은 좋은 의사를 갈망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좋은 약이려면 현금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반문명적인 짓이나 잔혹한 살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참으로 지극한 발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가령 누가 자신의 지나친 욕심,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그 잘못을 지적했다고 하자, 심중 팔구는 화를 내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 심하면 원수 사이가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마음의 양식이 될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다. 몸에 좋다고 하면 뱀, 지렁이, 개구리, 곰뱀이 따위도 입에 털어 넣으면서 마음의 양식이 될 가르침은 한 귀로 들고 한귀로 흘려버린다.

그렇다면 육체가 마음보다 더 중요한가?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애지중지 보살피지 다루듯이 다들 고집하고 아끼는 것으로 보아서는, 육신이 마음보다 분명 소중해 보인다.

하지만 단언컨대, 육신의 건강이 병은 아니며 육신의 건강만이 건강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는 행동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것은 병든 자아이지만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병이란 단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곧 치유될 수 있는 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쪽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둘 다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보다 몸에 더 비중을 두는 습성에 젖어 있는 한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명 의와 양악이 더 소중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명 의와 양악이 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龍眼

## 주제가 있는 법문

### 가을은 참회의 계절 아상 허물고 겸손합시다



성전선님 육천암 주지

며칠 전 오대산에 다녀왔습니다. 산은 이미 단풍이 서서히 들고 있었습니다. 물빛이 너무 맑아 단풍의 빨간 자태가 다 비칠 것만 같았습니다. 도시를 떠나 만난 가을 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무진 법문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윽한 평온을 안겨 주는 산 길에서 나는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산 길을 걸어 내게 다가온다면 그가 생면부지의 사람일지라도 그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가을 산 안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되고, 존재는 한없이 겸손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와 너’를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파른 아상의 벽을 허물지 못

은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곧 희망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시 긴 윤회의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중생에서 부처로, 날마다 향상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끝은 너무도 슬프게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인간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가 어렵다 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시간과 기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성불의 기회로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참회하고 원대한 서원의 행자가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죄가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허물을 고쳐 새롭게 되면 마음 따라 죄업도 멸할 것이다.”

가을은 참회의 계절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존재의 실상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무가 있을 떨듯 우리도 허위의 가식과 죄업의 무게를 스스로 털어 내야만 합니다.

존재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질 때 대장부의 길은 우리 앞에 현존할 것입니다. 겨울이 살아 가고 있는 이유는 성불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참회 하고 참회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참회는 절망을 희망으로, 거짓을 진실로, 범부를 부처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행복은 참회의 깊이에 비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 불자님 모두 참회를 통해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는 큰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발원 합니다.

## 참회의 힘은 거짓을 진실로 범부를 부처로

한 체 불행한 나날을 견디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상의 벽을 허물 수 있다면 세상은 온통 한 생명의 즐거움 뿐일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은 사라지고, 이기적인 존재양식만 고수하며 살아온 우리들 삶의 결과는 너무나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날의 영화를 물 위에 떠나 보내며 묵상하듯 고개 숙인 가을 산의 눈빛에서 나는 깊은 구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에 이르고자 하는 가을 산의 깊은 침잠이었습니다. 겨울 산이 진실을 상징한다면 가을 산은 참회를 의미합니다. 진실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참회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보다 나

## 신행캘린더

### 10월 18일(수)

■태고보우 국사 탄신 699주년 다례법요식=태고종은 오전 11시 북한산 태고사에서 태고보우 원증국사 탄신 699주년 다례법요식을 봉행한다. 02)745-2030

■삼광사 지장전 낙성법회=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오전 10시 지장전 낙성 및 육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한다. 051)808-7111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월정사는 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재조명’을 주제로 12시 강원도 오대산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강병희(외국어대 강사), 정영호(한국고원대 명예교수), 강순형(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씨 등이 발제에 나선다. 033)332-6664

### 10월 19일(목)

■법왕사 달서분원 개원법회=대구 법왕사 달서분원은 정무스님을 중명법사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10시에는 아미타불 부처님 봉안식을 거행한다. 053)644-8108, 9108

■직지사 종합불사회향 5주년 기념 대법회=직지사는 11시 만덕전에서 종합불사 회향 5주년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054)463-6013

### 10월 20일(금)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학술세미나=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20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불전전산화의 재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02)2260-3504

■봉림사 백고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30분 금공사 주지 자광스님을 초청하여 백고와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 10월 21일(토)

■우리는 선우 정기 수련회=우리는 선우는 22일까지 1박 2일로 충북 괴산 다보 수련원에서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기 수련회를 개최한다. 02)2278-8672

### 10월 22일(일)

■청주 정토마을 법당 낙성식=불교계 최초의 무료 호스피스 시설인 청주 정토마을(원장 농행)이 22일 9시30분 속리산 법주사 주지 명성스님을 증명으로 법당 태좌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갖는다. 법회이후에는 연예인 공연 등 문화행사도 펼친다. 043)298-2258

### 10월 23일(월)

■능인선원 사경법회=능인선원은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천수경과 금강경 사경법회를 봉행한다. 02)577-5800



# 갈월사 영탑(靈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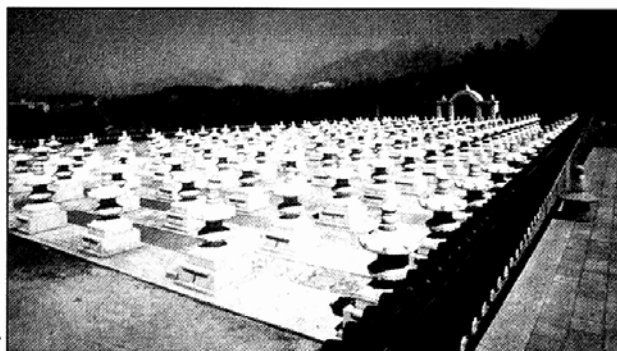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 탐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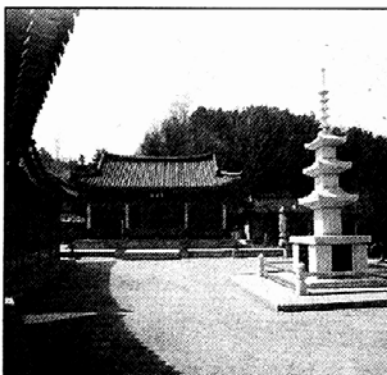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벗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 영탑의 특징

- ▶ 탐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한 타 탐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 탐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탐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정문